

“녹색교회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회의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긴 여정”

■ 미션21 창간27주년 특집 인터뷰- ‘녹색교회의 길을 묻다’ 광주벚엘교회 리종빈 목사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 폭염과 홍수, 산불과 가뭄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창조세계의 신음은 이제 교회의 신앙과 선교를 향한 질문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영혼구원과 교회성장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는 일 역시 복음의 중요한 과제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광주벚엘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며 예배와 교

육, 교회 운영과 생활양식까지 녹색교회로 전환해 온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션21 창간 27주년을 맞아 본지는 리종빈 목사를 만나 녹색교회로의 전환 과정과 성과, 그리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들었다.

대답=이택행 본지 주필
영상=장복근 미디어팀장



▲기후위기 시대, 광주벚엘교회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녹색교회로의 전환을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2022년 하반기, 교회 창립 44주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앞으로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창조세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환경문제를 사회적 이슈 정도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신앙의 중심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를 돌보는 일은 선택적인 사회봉사가 아니라 창조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영혼만 구원하고 창조세계를 외면한다면 복음은 반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색교회를 새로운 운동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회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사 지속 녹색교회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과 함께 12주 과정의 탄소제로 세미나를 운영하며 성도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예배와 교육, 행정, 시설관리, 교회 재정, 식생활까지 하나님께 연결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추구한 것은 환경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생활양식 전체를 생명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광주벚엘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녹색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십시오.

첫째, 분기별 1회 ‘녹색 예배

지 소비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순을 회개하고, “불편함이 기쁨이다”라는 핵심 가치를 영적으로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2026년 6월 7일에는 전 교인이 동참하는 뜻깊은 ‘환경주일’을 지켰습니다. 생태선교학 전공 강사를 모신 예배와 캘리그라피·업사이클링 전시를 진행했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과 ‘월드비전’이 공동 개발한 맞춤형 교재로 창조 질서 회복 생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예배 후 오후에는 7개 교구가 동네 구석 구석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전 교인 플로깅(줍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의미를 연결했습니다.

대입입니다.

녹색 리본과 대중교통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생태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Re-born’의 의미를 담은 녹색 리본을 전 교인이 패용하여 “이 리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외부인들에게 교회의 비전을 설명하는 ‘움직이는 선교’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매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날을 정하여 택시를 타고 예배에 오는 성도들을 대신해 택시 기사님들께 감사 인사와 선물을 전하는 캠페인으로 지역 사회와 따뜻하게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또 녹색 기도회와 플로깅(줍깅)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신음하는 영산강 현장을 직접 찾

니다. 가정에서도 절전과 자원 순환을 실천하고, 다음 세대는 생태감수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어려운 과제도 있습니다. 환경을 아직도 부수적인 프로그램 정도로 이해하는 인식입니다. 녹색교회는 행사 몇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바뀌고 소비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녹색교회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회의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긴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환경목회와 복음, 그리고 선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환경목회가 복음의 확장



미션21·msTV와 인터뷰 하고 있는 리종빈 목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돌보고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기독교환경운동 ‘살림’과 12주 ‘탄소제로 세미나’ 운영, 성도들의 인식 전환
자발적 불편 감수 일회용품 퇴출부터 녹색예배, 탄소금식, 줍깅, 자원재활용까지

“기후위기 극복 지역사회와 학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야”

▲녹색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의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환경을 교육의 주제가 아니라 신학의 주제로 세웠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창조세계 회복”으로 다시 선언했고, 담임목

(에너지 절감 예배)를 드립니다. 대형 LED 스크린 전원을 차단하고 최소한의 조명만 남기고, 전자 악기 대신 그랜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예배를 드립니다. 냉난방 설정 온도 역시 조절하여 인위적인 에너지 사용을 줄입니다. 이는 과도한 에너

를 줄여, 생활 실천에 있어서는 일회용 컵 제조 운동인데, 구역 장 모임부터 시작된 일 실천은 이제 교회 모든 공간에서 종이컵을 퇴출하고 ‘텀블러 문화’로 확고히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사순절 탄소 금식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매년 사순절 기간, 전통적인 음식 금식 대신 ‘탄소 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TV 1시간 끄기’, ‘불필요한 등 1개 끄기’, ‘개인 물병 사용하기’, ‘가족과 옷차림 바꾸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등 40일 동안 매일 다른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영적 훈련과 생태 실천을 결합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원 순환 생활화운동으로 폐전선지와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두어 지역사회의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월 스토어 물품 기증, 헌 텀블러 세척 및 나눔, 일회용 비닐을 대체하는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 등을 통해 일상 속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페인 및 현장 연

아가 생태계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교회의 모든 아와 소풍 시 주변 환경 정화를 의무화하여 삶의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더불어서 도농 직거래 장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이기 협회’와 연대하여 푸드 마일리지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축함과 동시에, 농어촌 교회와 도시 교회가 서로를 살리는 상생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 사항은 매월 주보와 교회 로비의 전용 모니터를 통해 끊임없이 공유되며, 기후 위기 대응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주, 매일의 일상적인 신앙 습관이 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회 4년, 가장 큰 성과와 가장 큰 과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성과는 탄소를 줄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환경을 시민운동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신앙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

니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가장 먼저 가장 약한 사람들에 돌아옵니다. 홍수와 폭염, 식량위기와 질병은 결국 가난한 이웃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결국 이웃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목회는 생명선교이며 생태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창조세계 사랑까지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머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지역사회는 교회로 다시 신뢰하게 됩니다. 교회의 공공성은 사회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함께 책

임지는 자세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한국교회가 반드시 바뀌어야 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공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가를 묻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은 결과일 수 있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돌보고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앞으로의 예배도 예배당에서 끝나는 안 됩니다. 전등 하나를 끄고, 종이컵 하나를 줄이고, 텀블러 하나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위기인 동시에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생명을 중심에 두는 목회로 전환할 때 새로운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미션21의 시선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과 신앙의 방향을 다시 묻는 시대적 질문이 되었다. 이번 인터뷰는 녹색교회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예배와 선교, 공공성과 일상을 하나의 생명신앙으로 연결하려는 목회의 철학을 보여준다.

광주벚엘교회의 실천은 완성된 모델이라기보다 한국교회가 함께 걸어갈 한 방향을 제시한다. 교회의 미래는 더 이상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가에 의해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생명을 살리고, 창조세계를 회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가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창간 27주년을 맞아 미션21은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기록하고 성찰하는 언론으로서, 교회가 창조세계를 향한 책임을 회복하고 생명의 문명을 함께 세워가는 여정을 독자와 계속 나누고자 한다.



최근 녹색주일예배에서 초빙강사 이명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22년 말 광주벚엘교회 당회원들이 텀블러를 들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3040 어울림교구가 교회주변 줍깅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녹색주일예배에서 스크린과 조명을 끄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온가족이 줍깅을 하면서 다음세대가 생태감수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